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동향 비교분석*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and Japan

백 재 은 (Jae Eun Baek)**

초 록

현대인들의 정신적·심리적 상처와 문제 등의 증가로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와 함께 독서치료 관련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치료 연구발전과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확립을 위해, 현 시점에서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가입국가 가운데 자살률 1, 2위 국가이자 1950~60년대 비슷한 시기에 독서치료를 도입한 한국과 일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양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독서치료 연구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시점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모든 학문분야의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3개의 관점 - (1) 연구논문, (2) 용어활용, (3) 학문분야 및 연구방법 - 에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양국에서의 독서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었고, 동일한 영역 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creased mental and psychological wounds and problems in modern humans has resulted in improve the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bibliotherapy, and an increase in research related to bibliotherapy. We need to analyze the trend of bibliotherapy research at this point in time from various viewpoints for future development of research on bibliotherapy and establishment of recognition for bibliotherapy.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rends of bibliotherapy research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tudy focuses on research academic papers related to bibliotherapy published in Korea and Japan from 1960 to 2016, and the was analyzed and examined from three viewpoints - (1) Research paper, (2) Utilization of terms, and (3) Academic field & Research Method.

키워드: 독서요법, 독서치료, 비교분석, 용어활용, 일본, 연구동향, 연구방법, 학문분야, 학술연구논문, 한국 Academic Field, Academic Research Paper, Bibliotherapy, Comparative Analysis, Japan, Korea, Research Method, Research Trend, Term Usage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37624).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강사(jaeeunb1979@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17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2월 22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3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5-26,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005]

1. 서론

지난 수년간 한국은 OECD가입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로, 자살률과 함께 우울증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실태조사(2013)¹⁾와 정신건강 실태조사(2016)²⁾에 의하면, 자살 증가 및 자살시도의 주된 원인은 정신과적 증상(37.9%)과 대인관계 스트레스(31.2%)로 나타났고, 2016년은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요즘 한국인들이 정신적·심리적 으로 많은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점차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OECD가입국가 가운데 자살률 2위 국가 일본에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자살자 수가 3만명³⁾을 넘어섰고, 자살의 원인 및 동기로 ‘우울증’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에서는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 및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살·우울증 대책 프로젝트팀’을 설립하여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⁴⁾

현대인들은 심리적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고자 정신건강 치료 혹은 심리치유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는 다양한 치료법 -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등 - 의 개발과 일반인의 참여 및 활용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치료법들 가운데 ‘독서치료’는 일반인이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백재은 2015)으로, 독서 가운데 독자가 도서 인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독자 자신의 상처와 문제 등을 치료하고 치유받는 치료법이다. 독서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부터로, 이후 20세기 중반부터는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과 함께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황금숙 2005a).

독서치료를 고찰하는 학문이 증가하고 범주가 확대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독서치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독서치료가 정착되고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독서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 다시 말해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분야 혹은 특정학문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변기용, 이석열, 김수홍 2010)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 한국에서의 독서치료 연구의 흐름, 현황, 그리고

1) 서울의과대학(2013).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2013 자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국내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64만 3,102명으로 2015년 (60만 1,152명)보다 7%가량 늘었고,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출처: news1, <http://news1.kr/articles/?2971405>).
3) 일본 경찰청 통계조사에 의하면, 2009년 일본 자살자 수는 총 32,845명으로, 자살 사망률은 25.8%이다.
4) 厚生労働省. 自殺・うつ病等対策プロジェクト チームとりまとめについて [online]. [cited 2017.6.20]. <www.mhlw.go.jp/seisaku/2010/07/03.html>.

연구주제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앞으로 독서치료 연구의 체계적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미경, 김보경 2012).

1968년 독서치료가 도입된 한국은 지금까지 각종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0년간의 독서치료 연구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OECD가입국 가운데 자살률 2위이자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독서치료를 도입한 일본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양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독서치료가 도입된 각각의 시점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독서치료 연구의 학술연구논문⁵⁾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를 토대로 3개의 관점 - (1) 연구논문, (2) 용어활용, (3) 학문분야 및 연구방법 - 에서 양국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연구들을 살펴보았고, 3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3개의 관점에서 조사 및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고찰 및 결론을 서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치료 개념과 용어

2.1.1 독서치료 개념 및 정의

책과 독서를 활용한 치료는 고대부터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도서관 설립 후 이를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로 불렀고(정필모, 오동근 1991), BC300년경 그리스의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을 위한 약'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배치되어 있었다(Ruth M. Tews 1970). 또한 아리스토텔라스는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를 논하며 문학뿐 아니라 다른 예술도 사람에게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고 언급하고 있다(한국 어린이문학 교육회 2001).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문학 또는 책을 뜻하는 'biblio'와 치료하다를 의미하는 'oepatteid'로부터 파생된 용어로, 간결하게 '책으로 치료하다' 또는 '책의 도움을 받다'로 기술할 수 있다(백재은 2015). 독서치료의 원어 'Bibliotherapy'는 1916년 Atlantic Monthly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였고(M. Howie 1983), '책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정의되어 있었다(毛利美都代 1998).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독서치료는 많은 관심과 관련 활동, 프로그램 등의 증가로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도 여러 관점에서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학문분야 가운데 3개의 학문분야(교육학, 문헌정보학, 정신의학)를 선택하여 각 분야에서 제공하는 사전들을 통해 독서치료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교육학 분야의 Dictionary of Education에 의하면, 독서치료는 책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선택된 독서자료에 내제된 생각이 독자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질병에 치료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Good

5) 학술지 혹은 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1966: 황금숙 2005a). 그리고 독서치료는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책을 사용하며, 책은 독자의 성격을 측정 및 파악하고 적응과 성장, 정신적 건강을 위해 사용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사전, ALA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독서치료는 정신적·정서적 장애와 사회적 부적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직접적인 독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보조물로, 다른 읽기자료와 도서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것(Young, ed. 1983)이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온라인사전(ODLIS)⁶⁾에서는 독서치료를 정신질환이나 감정적 장애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의 회복을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독서 프로그램이며, 계획한 콘텐츠에 근거하여 선정된 도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의학 분야의 독서치료 정의를 살펴보면,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는 독서치료를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책을 이용하여 독서하는 것(Elsevier 1941)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는 독서치료가 독서를 통한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안내로, 의학과 정신의학에서 치료의 보존 수단으로 선택한 읽기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독서치료에 관한 정의는 각 학문분야와 사전 등에 따라 용어의 관점 및 분석에서 조금씩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독서치료가 “인간의 정신적 건강, 정서적 장애 등을 해결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도서라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2.1.2 독서치료 관련용어

학문분야에 따라 독서치료의 정의 및 개념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독서치료 관련용어도 치료매체, 활용방법, 학문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고 정의도 다르다. 독서치료는 용어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여 광의적 의미에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다양한 독서치료 관련용어들 가운데, 특히 독서치료의 동의어와 유의어로 활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동의어는 ‘독서요법’, ‘읽기요법’, ‘비브리오세라피’, ‘Bibliotherapy’ 등이, 유의어는 ‘문학치료’, ‘시치료’, ‘글쓰기치료’ 등이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다양한 독서치료 동의어와 유의어 가운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독서요법’, ‘문학치료’, ‘글쓰기치료’, ‘시치료’를 중심으로 이들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서요법(讀書療法)은 Bibliotherapy의 번역어로, 1935년 일본에서 번역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독서치료의 동의어이다. 독서요법은 독자의 필요에 의해 그들 자신의 마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독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도서와

6) ODLIS: 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nline]. [cited 2017.6.20].

〈http://www.abc-clio.com/ODLIS/odlis_b.aspx〉.

7) 글쓰기와 독서요법 [online]. [cited 2017.6.20].

〈<http://www.bibliotherapy.pe.kr/jboard/?p=detail&code=lecture1&id=97&page=17>〉.

함께 비디오, 음악, 영상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毛利美都代 1998). 이어서 문학치료(Literatherapy)에 대해 살펴보면, 문학치료는 20세기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예술치료의 한 분야로(백현기, 강경숙, 노정은 2017), 문학(혹은 문학 텍스트)을 통한 치료이자 글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치료(황금숙 2005a)이다. 문학치료에서 문학은 시 뿐 아니라 여러 장르의 문학, 이야기, 신문기사, 영화, 연극(대본)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매체로 언어를 표현한 광의의 문학을 의미하고 있다(이봉희 2014).

글쓰기치료(Journal therapy)는 정신적·심리적·육체적·영적으로 좀더 나은 행복을 위해 목적지향적이지도 의도적으로 글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명료화하는 치료수단⁸⁾이자 치료법으로, 독서치료, 이야기치료,⁹⁾ 문학치료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¹⁰⁾이다. 그리고 시치료(Poetry therapy)는 문학작품 가운데 시를 활용한 치료법(平宮正志 2005)으로, 시를 읽고 쓰고 듣거나, 시낭송, 시에 대해 말하기 등 시를 매체로 하여 인간의 정신을 치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현희 외 2005). 시치료는 독서치료보다 매체가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독서치료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대중적인 용어로(황금숙 2005a), 독서

치료 혹은 문학치료와 동일하거나 독서치료에 속한 치료방법 혹은 독립적인 치료법으로 구별하여 사용될 수 있다(平宮正志 2005).

독서치료의 동의어와 유의어들은 독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아성장 및 정신적·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개념 및 역할들이 서로 비슷하게 서술된다. 그리고 이 용어들은 독서치료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나, 독서치료의 카테고리에 포함 혹은 동일한 범주를 나타내고 있어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2.2.1 한국의 독서치료

한국에서 독서치료는 1964년 Margaret, C. Hannigan의 '도서관과 비브리오테라피'를 유중희가 번역하여 국회도서관보에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독서치료는 199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연구만 진행되어 오다가(김수경 2010), 2000년 이후부터 여러 사회적 요인과 함께 많은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과 각종 기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독자(또는 이용자)의 자가치료를 돕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등을 위한 독서치료 독서목록¹¹⁾이 개발 및 활용

8) Center for Journal Therapy [online]. [cited 2017.6.20]. <<https://journaltherapy.com>>.

9)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는 내담자와 치료자가 직접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말한다(엘리스 모건 2013).

10) 글쓰기와 독서요법 [online]. [cited 2017.6.20].

<<http://www.bibliotherapy.pe.kr/jboard/?p=detail&code=lecture1&id=97&page=17>>.

11)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1999년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시작으로 남산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과 기관에서 개발을 시작했고(백재은 2015), 현재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발행되고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치유서를 대상, 상황별과 증상별 카테고리에 의해 분류, 치유서별로 도서의 서지정보(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등)와 소개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되면서 독서치료는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독서치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0년대부터로, 다양한 학문분야(교육학, 심리학, 문학, 종교학, 유·아동학, 문헌정보학 등)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서치료 연구가 주로 수행되는 기관은 학교, 종교기관, 도서관, 유치원 등으로, 학교와 도서관에서 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독서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독서치료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명희 2014).

2.2.2 일본의 독서치료

일본에서 독서치료는 독서요법으로 불리며, 한국의 독서치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1935년 竹林熊彦에 의해 'Bibliotherapy'가 처음 소개되었고(阪本一郎 1965), 1950년 阪本一郎가 '독서지도 원리와 방법'에서 '독서요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점차 정착되기 시작했다(室伏武 1965).

독서요법은 1960~70년대 관련 도서들의 출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도서 부록으로 '치료적 도서목록(治療的な図書目録)', '독서요법에 적합한 도서목록(讀書療法に適切な図書目録)' 등과 같은 독서요법 도서목록¹²⁾이 수록되어 제공되면서 독서자가치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되기 시작했다. 독서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60년대부터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앞으로의 실천과 성과에 대해 크게 기대했었으나(阪本一郎, 室

伏武 1966), 1990년대 이후부터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松尾直博 2011). 또한 도서관이나 기관들에서도 별도의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2.3 관련연구

2.3.1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황금숙(2005a)은 2004년까지 발행된 독서치료 연구자료(석·박사학위논문, 학술연구논문, 단행본)를 연구대상으로 선별하여 연도별, 대상별, 연구유형별, 학문영역별로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조사 및 분석했다.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독서치료 관련연구는 양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관련용어와 개념들을 비롯한 연구방법, 분석관점 등을 확인하여 참고하였다. 이 논문과 본 연구는 연구대상, 접근관점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유용하고 주된 선행연구로 활용되었다.

2.3.2 독서치료 연구의 전공영역별 연구 형태 분석

이명희(2014)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

12) 독서요법 도서목록은 치유서의 기본 서지정보(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등)가 제공되고, 주제 혹은 상황, 대상(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으로 분류하여 구성되어 있다.

술지에 발표된 130편의 연구논문을 5개 전공영역으로 분류하여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내용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치료 연구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다른 학문분야(교육학, 문학, 유·아동학, 심리학, 종교학 등)와 문헌정보학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여 앞으로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치료 연구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연구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독서치료 연구의 특성을 제안하고 있는 이 논문은 본 연구와 연구관점, 연구 카테고리, 접근방법 등은 다르지만, 독서치료라는 분야에서 학술연구논문을 주된 연구대상으로하여 학문분야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연구방법과 분석조건 등을 참고하였고, 각 전공영역별 독서치료의 현황도 확인 및 검토하여 한국 독서치료 연구동향의 기초정보로 사용하였다.

2.3.3 외국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황금숙(2005b)은 외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학문분야별 해외DB를 이용하여 5개 조사항목(문헌유형, 연도, 학문영역, 연구내용, DB)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독서치료 연구는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독서치료 연구동향과 연구현황에 관한 연구, 특히 외국 독

서치료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이 논문에서는 해외의 학문분야별 DB를 활용하여 독서치료 관련문헌들을 조사하고 있어 외국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정국가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은 연구방법은 본 연구와 다르지만, 한국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연구발전을 위해 타 국가와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려는 접근점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외국 독서치료 연구동향의 전반을 참고하여 외국 독서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3.4 일본에서의 독서요법 필요도 조사에 관한 보고¹³⁾¹⁴⁾

Mori Mitsuyo(1998)는 일본 현직 사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 독서요법의 현위치와 필요도에 대해 분석하여 이에 대한 결과와 독서요법 동향, 필요성 등을 나열하고 있다.

독서요법의 필요도 조사분석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독서요법에 대한 인식이 사서와 일반인 모두에게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독서요법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본 독서요법의 현황과, 용어로서 독서요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사 그리고 독서요법의 장·단점 등을 참고하여 이를 일본 독서요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3) 4)~6)장은 일본논문으로, 각 논문제목은 저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가제목이다. 일본어 원제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日本における読書療法の必要度調査に関する報告(일본어 원제목)

2.3.5 중학생의 독서와 자기기억의 관계:

독서요법의 관점에서¹⁵⁾

Matsuo Naohiro(2011)는 독서요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내포한 관점에서 일본 중학생의 독서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독서요법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독서량, 독서효과, 독서와 자기의식간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결과를 나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독서에 의한 효과와 자기의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이는 독서요법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요법의 필요성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일본에서의 독서요법 현황, 관심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의 독서요법 필요성을 분석 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본 독서요법의 현황조사를 위한 기본정보로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2.3.6 독서요법의 목적과 독서요법 진행 시의 유의점에 관한 고찰¹⁶⁾

Masashi Hiramiya(2005)는 일본 독서요법의 목적과 개념, 그리고 독서요법과 문학요법(혹은 문예요법)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독서요법 가운데 시요법(혹은 시치료)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독서요법 진행시의 유의점, 도서선택법, 독서요법 가운데 필요한 적용조건 등

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일본 독서요법, 특히 문학요법과 관련된 용어들, 개념 등을 나열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서 본 연구는 일본 독서요법의 구성요소, 관련용어, 그리고 용어의 개념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시요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일본 독서요법을 고찰할 수 있었다.

3.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대한 조사는 독서치료가 처음 도입된 시점(한국 1968년, 일본 1935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모든 학문분야의 학술연구논문을 연구대상으로 3개의 관점 - (1) 연구논문, (2) 용어활용도, (3) 학문분야 및 연구방법 - 에서 비교 분석 및 고찰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분석을 진행하기 앞서 3.1장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3.1 기초 데이터 수집

독서치료 연구동향의 비교 분석을 위해 앞서 기초 데이터의 수집을 실시하였다. 기초 데이터 수집은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서치료 용어' 혹은 '독서치료 동의어'를 선별하여 각국에서 활용되는 3개의 학술전문 DB에 이들 용어의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양국 독서치료 연구의 학술연구논문을 모두 수

15) 中學生の讀書と自己記憶の關係：讀書療法の觀點から(일본어 원제목)

16) 讀讀書療法の目的と實施上の留意点に關する一考察(일본어 원제목)

집하였고, 수집된 논문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양국 독서치료 연구동향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독서치료 용어 혹은 동의어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서 독서치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크게 3개의 용어 - ① 독서치료, ② 독서요법, ③ Bibliotherapy - 가 있다. '독서치료'와 '독서요법'은 'Bibliotherapy'의 번역어로, 한국에서는 '독서치료'로, 일본에서는 '독서요법'으로 번역되어 양국에서 주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에서 독서치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용어와 원어를 활용하여 기초 데이터 수집을 실시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언어표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한국의 경우는 한글과 한자(혹은 영어)로, 일본의 경우는 한자와 히라가나(혹은 가타카타)로 변환하여 용어를 구성하였다. 국가별로 구성된 6개의 용어들(한국은 ㉠~㉦, 일본은 ①~⑥)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양국 독서치료 연구의 학술연구논문을 수집

하기 위해 우선, 학술연구논문을 제공하는 전문DB를 조사하여 용어검색을 실시하였다. 전문DB는 각국에서 출판된 학술연구논문 또는 학술잡지논문의 검색이 가능하고 논문의 서지 정보 및 원문이 제공되는 DB를 우선으로 하여, 국가별로 각각 3개의 DB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학술연구논문을 제공하는 전문DB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술연구논문 전문DB로 주로 활용되는 '한국 교육 학술정보원(KERIS)', '국회도서관 DB', 'DBpia'를 선정하여 사용하였고, 일본은 일본 대학 내에서 학술연구논문의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학술검색 전용 웹사이트 '국립 정보학 연구소 학술정보 내비게이트(CiNii17)', 'Google/Scholar', '국회도서관DB'를 선택하여 논문검색에 사용하였다. 더욱이 학술연구논문¹⁸⁾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 및 논문검색의 추가조건으로, 한국은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의 학술연구논문으로 범위를 제한하였고, 일본은 대학의 기요논문(紀要)¹⁹⁾과 발표집을 제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서치료 동의어이자 검색용어

용어	국가별	한국적 표기	일본적 표기
독서치료		㉠ 독서치료 ㉡ 讀書治療	① 讀書治療 ② どくしょちりょう
독서요법		㉢ 독서요법 ㉣ 讀書療法	③ 讀書療法 ④ どくしょりょうほう
Bibliotherapy		㉤ 비브리오테라피 ㉦ Bibliotherapy	⑤ ビブリオセラピー ⑥ Bibliotherapy

17) Scholarly and Academic Information Navigator, pronounced like "sigh-knee"

18) 학술연구논문은 연구자가 집필한 논문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기존연구의 재조성을 위한 새로운 연구제안 및 분석 등)을 여러 편의 논문들과 함께 게재하여 학회 혹은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출판물을 의미한다.

19) 기요(紀要)는 일본 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 학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학술연구논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한 학술지(혹은 학술잡지)의 학술연구논문을 범주로 설정하였다.

기초 데이터 수집과 함께, 각DB에서 용어별로 총 18회의 검색 및 논문의 중복확인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는 1968년 김병수에 의해 발표된 논문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189편 학술연구논문이 수집되었고, 일본은 1962년 阪本一郎에 의해 작성된 논문 ‘子どもの讀書療法について²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91편의 논문이 수집되었다. 3.2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3개의 관점 - (1) 연구논문, (2) 용어활용도, (3) 학문분야 및 연구방법 - 에서 비교 분석을 시작하였다.

3.2 연구논문 생산현황

1961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양국 독서치료 연구의 학술연구논문은 총 280편으로, 이들 논문의 생산현황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들을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정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수치를 살펴본 결과, 3.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논문들을 발표 및 출판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좀 더 상세히 서술하면, 우선 한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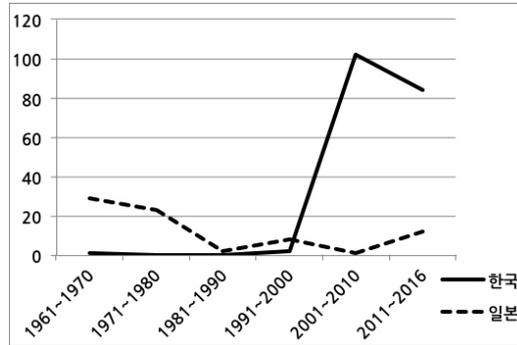
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논문 생산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독서치료가 도입된 1968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 수는 전체 논문 수의 1.6%로 아주 적은 반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논문 수는 전체의 98.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독서치료가 도입된 직후 60, 70년대에 논문이 집중적으로 작성되었고 이 기간동안 발표된 논문 수는 전체의 57.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1년이후부터 논문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현재까지 전체의 42.9%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수치상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정리해보면 20년간 52편의 논문이, 36년간 39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양국의 연구논문 생산현황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독서치료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시기에,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15년간, 일본에서는 1960년부터 20년간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1991년을 기준으로 서로 상반된 독서치료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 2>와 <그림 1>에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표 2> 양국에서 발행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연도별 생산현황

연도 \ 국가	1961 ~1970	1971 ~1980	1981 ~1990	1991 ~2000	2001 ~2010	2011 ~2016	합계
한국	1	0	0	2	102	84	189
일본	29	23	2	8	17	12	91

20) 어린이의 독서요법에 관해서(한국어 번역 제목)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 생산현황

3.3 용어활용도

학술연구논문의 생산현황에 이어서 본 장에서는 양국 독서치료 연구동향 조사의 일환으로 독서치료 연구의 학술연구논문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와 연도별 용어사용빈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용어활용도²¹⁾ 조사는 3.1장에서 언급한 3개의 전문DB와 <표 1>에서 제시한 독서치료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명 검색’과 ‘키워드 검색’으로 실시하였고, 각 용어의 활용여부를 용어별, 연도별로 확인하여 국가별로 서술 및 나열하였다.

3.3.1 한국

한국의 독서치료 용어활용도 조사는 <표 1>에서 제공한 용어(A)~(F)를 전문DB에 입력하여 검색을 실시, 논문별로 초록과 키워드 등을 상세하게 검토 및 확인하여 진행하였다.

한국 독서치료 용어활용도 조사 결과, ‘독서치료(讀書治療)’ 173편, ‘독서요법(讀書療法)’ 19편, 그리고 ‘Bibliotherapy’ 95편이 검색되었

다. ‘독서치료(讀書治療)’와 ‘독서요법(讀書療法)’은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에서 모두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고, ‘Bibliotherapy’는 영어표기만 검색되었다. 용어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용어와 논문 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재검색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용어들은 모든 논문내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한글표기로 된 ‘독서치료’가 가장 많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용어들이 중복적으로 사용된 논문들을 제외하여 학술연구논문에서 순수하게 활용된 용어활용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독서치료(讀書治療)’ 87편, ‘독서요법(讀書療法)’ 6편, 그리고 ‘Bibliotherapy’ 7편으로, ‘독서치료(讀書治療)’가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용어들은 동일한 목적과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의어지만, 활용도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중복여부에 따라 수치도 조금 달랐지만, 한

21) 용어활용도 혹은 용어빈도에 대한 조사는 특정용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동향 조사의 한 부분으로 용어활용도 조사를 실시, 대표적인 독서치료 동의어 가운데 각 용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용어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용어는 “독서치료(讀書治療)”로, 전체 논문의 87%²²⁾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표 3>은 한국 독서치료 용어활용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용어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용어활용도 조사와 함께 용어사용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1968년부터 발표된 논문들을 10년 단위로 정리한 결과,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독서요법(讀書療法)’만 아주 낮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2000년 이후부터 독서치료 연구 증가 및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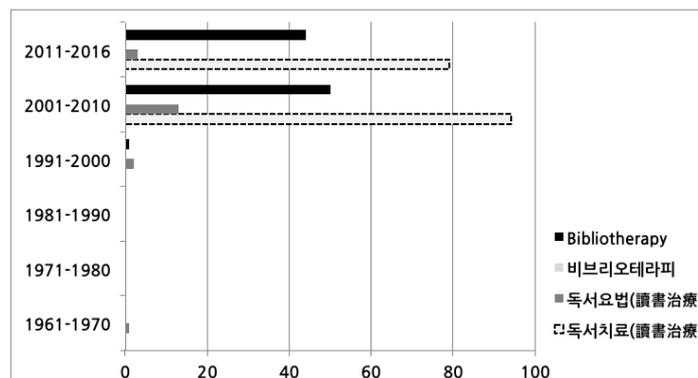
발행 등으로 ‘독서치료(讀書治療)’의 사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주된 용어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는 ‘독서치료(讀書治療)’와 함께 ‘Bibliotherapy’도 급증하여 사용되기 시작했고, ‘독서요법(讀書療法)’도 이전에 비해 조금 증가했었지만 현재는 다시 감소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3.3.2 일본

일본의 독서요법²³⁾ 용어활용도 조사는 한국과 동일하게 앞서 선정된 6개의 용어 ①~⑥을

<표 3> 한국의 독서치료 용어활용도

DB \ 키워드	① 독서치료 (② 讀書治療)	③ 독서요법 (④ 讀書療法)	⑤ 비브리오테라피 (⑥ Bibliotherapy)
DBPia	94 (94)	10 (10)	0 (95)
국회도서관	138 (138)	16 (16)	0 (0)
RISS	145 (145)	10 (10)	0 (0)
합계	①173 (②173)	③19 (④19)	⑤0 (⑥95)



<그림 2> 한국의 용어활용 분포도(연도별)

22) 미중복을 확인한 용어를 바탕으로 낸 수치로, 중복용어를 포함한 수치는 독서치료(讀書治療) 60.3%, Bibliotherapy 33.1%, 독서요법(讀書療法) 6.6%이다.
 23)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서치료’와 동일한 의미로 『독서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독서치료 용어활용도 조사’가 아닌 ‘독서요법 용어활용도 조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부터 일본 독서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독서요법’이라는 표현으로 표기하였다.

전문DB에서 검색하고, 각 논문의 초록과 키워드를 검토 및 확인하여 진행하였다.

일본 독서요법 용어활용도의 조사 결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용어의 표기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讀書治療(どくしょちりょう)²⁴⁾’의 경우 한자표기와 히라가나표기 모두 동일하게 2편씩 검색된 반면, ‘讀書療法(どくしりょうほう)²⁵⁾’은 한자표기 62편, 히라가나표기 38편, 그리고 ‘Bibliotherapy(ビブリオセラピー)’는 영어표기 32편, 가타카나표기 6편이 각각 검색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요법 용어활용도를 좀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용어간의 중복여부를 위한 재검색을 실시한 결과, ‘讀書療法(どくしりょうほう)’만 모든 논문에서 중복이 확인되었고, 한자표기와 히라가나표기 모두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복된 용어들을 제외한 독서요법 용어활용도를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 ‘讀書治療(どくしょちりょう)’는 한자표기와 히라가나표기 동일하게 2편, ‘讀書療法(どくしりょうほう)’은 한자표기 23편, 히라가나표기 1편, ‘Bibliotherapy(ビブリオセラピー)’는 영어표기 22편, 가타카나표기 4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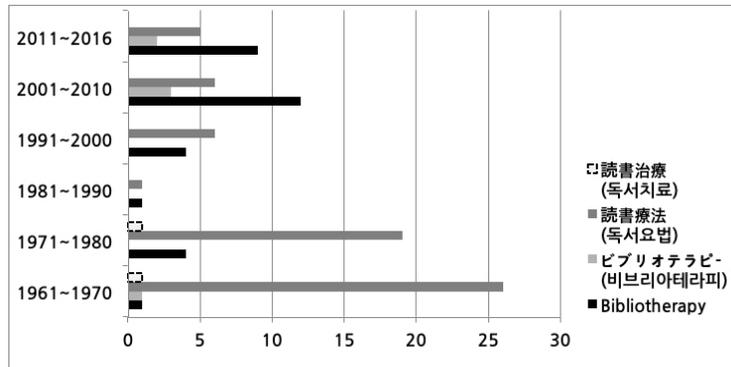
로 나타났다. 즉, 일본의 독서치료 용어 가운데 “讀書療法”의 한자표기가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독서요법 연구의 학술연구논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 용어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서요법의 동의어 혹은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용어별 활용빈도와 용어표기방식에 따른 활용도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4>에서는 용어활용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용어별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독서요법 용어활용도를 토대로 독서요법 용어분포도를 연도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1962년부터 발표된 총 91편의 논문을 10년 단위로 정리한 결과, 1962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讀書療法’이 주된 용어로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독서요법 연구가 줄어들고 학술연구논문 수가 급감하면서 용어사용도 급격하게 줄었으나, 1991년부터 연구논문 발표 수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讀書療法’의 활용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과거 주된 용어로 사용되었던 ‘讀書療法’보다 ‘Bibliotherapy(ビブリオセラピー)’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그림 3> 참조).

<표 4> 일본의 독서요법 용어활용도

DB \ 키워드	① 讀書治療 (②どくしょちりょう)	③ 讀書療法 (④どくしりょうほう)	⑤ Bibliotherapy (⑥ビブリオセラピー)
Google/ Scholar	0 (0)	0 (0)	24 (5)
CINII	2 (0)	62 (0)	20 (3)
국회도서관	2 (2)	57 (38)	18 (2)
합계	①2 (②2)	③62 (④38)	⑤32 (⑥6)

24) 독서치료
25) 독서요법



〈그림 3〉 일본의 용어활용 분포도(연도별)

3.4 학문분야

앞서 수집한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양국에서 발표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를 살펴보았다. 학문분야 조사는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혹은 학술잡지)가 나타내는 혹은 속하는 학문분야(대주제와 중·소주제)를 수집 및 분석하여 독서치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문분야를 확인하였다.

3.4.1 한국

한국에서 발표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를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²⁶⁾을 이용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은 각 학술지의 특징과 목적 등을 바탕으로 학술지의 학문분야를 ‘대분야(혹은 주제)’와 ‘중·소분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 및 이용하여 총 189편의 학술연구논문이 기재된 학술지의 학문분야(혹은 연구분

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는 한국에서 발행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학문분야들 가운데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발행된 학술지의 학문분야, 대분야(주제)는 “사회과학”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인문학(23.8%), 자연과학과 복합학(1.59%), 의약학과 공학(1.1%) 등의 순으로 나열되고 있었다. 대분야(주제)와 함께 각 학문분야 내의 소분야(주제)도 동시에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의 “문헌정보학(41.3%)”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어서 사회과학의 교육학(19.6%), 인문학의 문학(13.3%) 등의 순서로 논문들이 작성 및 발표되고 있었다. 그 외의 다른 학문분야들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복합학’, ‘한의학’, ‘영화’, ‘생활과학’ 등과 같은 학문분야에서도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독서치료를 연구하는 학문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online]. [cited 2017.6.20].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표 5〉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 학문분야별 분포(한국)

학문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심리과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교육학	법학	기타
논문수	1	10	1	78	37	2	3
(%)	0.5	5.3	0.5	41.3	19.6	1.1	1.6
학문	인문학						
	기독교신학	영어와 문학	일본어와 문학	중국어와 문학	독일어와 문학	프랑스어와 문학	
논문수	2	5	1	1	4	1	
(%)	1.1	2.7	0.5	0.5	2.1	0.5	
학문	인문학		공학		복합학		
	문학	기타	공학일반	건축공학	학제간연구	감성과학	과학기술학
논문수	25	6	1	1	1	1	1
(%)	13.3	3.2	0.5	0.5	0.5	0.5	0.5
학문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자연과학	합계	
	정신과학	한의학	수산학	영화	생활과학		
논문수	1	1	1	1	3	189	
(%)	0.5	0.5	0.5	0.5	1.6	100	

3.4.2 일본

일본에서 발표된 독서요법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를 조사하기에 앞서, 한국과 동일하게 일본의 '학술지인용색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학술지인용색인' 또는 학술지(혹은 학술잡지)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지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술연구논문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CiNii와 국회도서관DB(NDL²⁷⁾ OPAC)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CiNii는 학술연구논문의 서지정보와 학술지에 대한 정보로 NDL잡지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NDL잡지분류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분류표(NDLC²⁸⁾)에 의해 해당 학술지를 분류한 것으로, 학술지의 주제 혹은 분야를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DB(NDL-OPAC)는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잡지기사색인(雜誌記事索引)²⁹⁾을 작성하여 학술지의 서지정보들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DB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관련정보들을 모두 참고 및 수집하여 학문분야를 조사³⁰⁾

27) National Diet Library.

28) National Diet Library Catalog.

29) 일본 잡지기사색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수집·정리한 국내간행일문잡지(외국에서 간행 일문잡지·국내간행문잡지를 일부 포함)부터 고유의 논제를 가진 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잡지문헌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출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jp/data/sakuin/sakuin_select.html).

30) 한국의 학술지인용색인DB에서는 학술지의 학문분야를 대분야(주제)와 소분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소분야 혹은 하위분야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일본의 경우 DB에서 제공되는 소분야(주제)로 분류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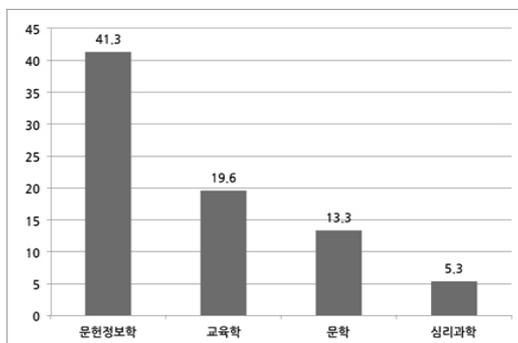
하였다. 다만, 이들은 학문분야의 ‘중·소분야(혹은 주제)’만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6>은 일본에서 발행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와 분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학문분야 가운데 일본 독서요법 학술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발행된 학술지의 학문분야, 소분야(주제)는 “도서관정보학”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의학(22%), 문학과 교육학(6.6%) 등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 외의 다른 학문분야로는 ‘심리학’, ‘법학’, ‘산업의학’, ‘사회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들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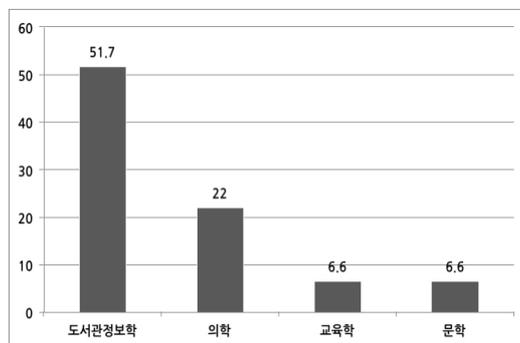
양국의 독서치료(혹은 독서요법)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 조사를 통해서, 지난 50년간 한국과 일본에서 독서치료(혹은 독서요법)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학문분야, 소분야(주제)는 “문헌정보학(일본에서 도서관정보학)”으로, 양국에서 매우 높은 수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서치료 연구가 진행되는 주된 학문분야 범위를 동시에 살펴본 결과, 양국 공통으로 ‘문헌정보학(일본의 도서관정보학)’과 함께 ‘교육학’과 ‘문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특이사항으로는 낮은 수치를 보여준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의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이 많이 발행되고 있었다.

<표 6> 독서요법 학술연구논문 학문분야별 분포(일본)

학문	사회학	교육학	산업의학	심리학	문학	법학
논문수	1	6	2	5	6	2
(%)	1.1	6.6	2.2	5.5	6.6	2.2
학문	의학	자연과학	기타	도서관정보학		합계
논문수	20	1	1	47		91
(%)	22	1.1	1.1	51.7		100



<한국>



<일본>

<그림 4> 양국 독서치료(혹은 독서요법)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

3.5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3.4장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각 학술연구논문의 연구방법 유형을 살펴보고 나열하였다. 연구방법에 대한 조사는 총 280편³¹⁾의 논문을 바탕으로 논문의 키워드, 내용, 연구방법 등을 검토 및 확인한 후 각 논문에 해당하는 연구방법을 5가지 유형 - ① 기초연구, ② 사례연구, ③ 임상연구, ④ 조사연구, ⑤ 현장연구 - 에서 찾아 분류하였다. <표 7>에서는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학술연구 논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은 “기초연구”로, 양국 모두 약 50%(한국은 45.5%, 일본은 51.7%)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외의 연구방법은 한국의 경우 ‘사례연구’, ‘조사연구’, ‘현장연구’의 순으로, 일본의 경우 ‘사례연구’, ‘조사연구’, ‘임상연구’의 순으로 연구방법이 활용되어 논문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양국에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 ‘기초연구’와 ‘사례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 ‘기초연구’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연구내용으로 작성 및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초연구’는 주로 고찰, 제안, 제시 등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예를 들면, 독서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독서치료 혹은 독서교육에 대한 일차적 연구, 독서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향 및 관점의 제안, 그리고 정신 혹은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서치료를 활용한 이론적 방법의 제시 등과 같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는 학교 및 각종 기관에서 직접적인 검증을 통한 사례연구가 가장 많은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독서치료(또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현상의 분석연구, 구체적인 대상단위를 선정하여 독서치료 진행 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논문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어서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인 ‘기초연구’는 대부분 개념정리, 기초이론 연구 및 제안 등과 같은 연구방법이 활용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독서요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정의 및 개념연구), 독서요법 치료

<표 7> 양국 독서치료(혹은 독서요법) 학술연구논문의 연구방법 분포

연구주제	국가명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기초연구	86	45.5	47	51.7
사례연구	35	18.5	25	27.5
임상연구	5	2.7	6	6.6
조사연구	34	18	9	9.9
현장연구	29	15.3	4	4.4
합계(편, %)	189편	100%	91편	100%

31) 양국에서 발행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총합계.

이론, 독서지도 및 독서요법 내에서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여러 학문분야의 관점에서의 독서요법 고찰 등과 같은 이론적 성격을 가진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는 성격문제아, 비행청소년, 정서불안정아 등과 같이 정확하고 좁은 범주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리적 독서요법을 실시, 독서요법에 의한 치료의 예를 나열하는 연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4. 고찰 및 결론

오늘날 독서치료는 널리 이용되고 있고(Rubin 1978), 독서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68년 한국에 도입된 독서치료는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각종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독서치료가 점차 정착되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독서치료의 흐름, 특히 독서치료 연구흐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대한 조사 및 고찰은 지금까지 독서치료 연구의 흐름을 확인하여 정비할 수 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도 모색하여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비교연구로 진행하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OECD국가 가운데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 증가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비교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국가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양국에서 진

행된 독서치료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은 양국에 독서치료가 도입된 이후부터 약50년간 발표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을 토대로 3개의 관점 - (1) 연구논문, (2) 용어활용, (3) 학문분야 및 연구방법 - 에서 조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하여 나열하였다.

첫 번째로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독서치료'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경우 '독서치료'가 도입된 6~70년대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다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한국은 도입초기에는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가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점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상반된 진행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에서 독서치료 관련 용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용어는 Bibliotherapy의 번역어인 "독서치료"와 "독서요법"이었다. 이 용어들은 양국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독서치료'가, 일본에서는 '독서요법'이 가장 높은 용어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주된 용어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언어표기법이 다른 만큼, 두 용어도 표기에 따라 수치상의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외의 용어로는 'Bibliotherapy'가 2000년 이후부터 양국에서 동시적으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양국의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들

은 “문헌정보학(일본의 도서관정보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었다. 양국 모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학문분야들은 수치상으로 매우 미미했고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비해 좀더 다양하고 많은 학문분야에서 논문들이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었는데, ‘문헌정보학’ 다음으로 ‘문학’, ‘교육학’, ‘심리과학’ 등에서, 일본은 ‘의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독서치료 학술연구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된 연구방법은 “기초연구”와 “사례연구”로 조사되었다. 양국에서는 독서치료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독서치료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기본적 활용연구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직접적인 대상자 혹은 이용자를 선정하여 독서치료를 진행 및 효과검증 등을 나열하는 사례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들 연구방법 외에도 ‘조사연구’, ‘현장연구’ 등의 여러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비율적으로 ‘임상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조사결과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의학’ 분야와 ‘임상연구’ 방법에서 높은 비중과 활용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독서치료에 관해 이론적 접근이 많았던 반면, 일본은 이론적 접근과 함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결과를 중요시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의학’ 관점에서 독서치료(혹은 독서요법)를 하나의 치료과정으로 환자 또는 독자에게 진행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여 이를 연

구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의학’과 ‘임상연구’로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었다.

20세기 비슷한 시기에 ‘Bibliotherapy’가 도입된 한국과 일본은 각국의 사회적 상황과 인식으로 인해 독서치료 연구진행의 흐름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0년간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연구가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과 함께 독서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한국 독서치료 및 연구진행을 위한 간단한 제안을 나열하고자 한다. 우선, 용어의 확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분야에서, 매체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독서치료 동의어와 유의어로서 활용되고 있어 용어 사용 및 정의 성립에 있어 혼돈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독서치료 용어의 범주, 치료법 등에 따라 용어를 확실하게 한다면 정확한 용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주된 용어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서치료는 학문의 경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독서치료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 학문들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여러 학문분야들의 협력 및 연계 하에 연구가 진행된다면 독서치료 연구는 기초연구를 넘어 독서치료에 대한 효과와 결과도 함께 살필 수 있는 사례연구, 임상연구 등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와 함께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이론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대상을 통해 진행 및 효과와 검증을 모두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유용하게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독서치료 연구들은 다방면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에 대한 토대구축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을 토대로 독서치료를 실시하고 효과를 살펴보고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경, 김보경. 2012. 한류관광 관련 연구동향 내용분석: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2003년-2012년). 『호텔경영학연구』, 23(3): 1-18.
- 김수경. 2010.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치료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241-268.
- 김현희 외. 2005. 『시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백재은. 2015.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화 치유서의 관계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217-239.
- 백현기, 강경숙, 노정은.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표현 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1): 601-625.
- 변기용, 이석열, 김수홍. 2010.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1): 121-145.
- 앨리스 모건 저, 고미영 옮김. 2013. 『이야기 치료란 무엇인가?』. 서울: 청목출판사.
- 이명희. 2014. 독서치료 연구의 전공영역별 연구형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15-235.
- 이봉희. 2014. 문학치료에서 활용되는 글쓰기의 치유적 힘에 대한 고찰과 문학치료 사례. 『교양교육연구』, 8(1): 281-310.
- 정필모, 오동근. 1991. 『도서관문화사』. 서울: 구미출판사.
- 한국어린이문학교육회 독서치료 연구회 편. 2001.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황금숙. 2005a.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14.
- 황금숙. 2005b. 외국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305-320.
- 毛利美都代. 1998. “日本における讀書療法の必要度調査に關する報告.” 『図書館界』, 50(4): 178-195.
- 松尾直博. 2011. “中學生の讀書と自己記憶の關係: 讀書療法の觀點から.” 『東京學芸大學紀要. 総合教育科學系』, 62(1): 205-213.
- 平宮正志. 2005. “讀書療法の目的と實施上の留意點に關する一考察--poetry therapyを含めて.” 『讀書科學』, 49(1): 33-39.
- 阪本一郎. 1965. “わが國での讀書療法の研究と事例.” 『讀書科學』, 8(3): 30-35.

- 阪本一郎, 室伏武. 1966. 『讀書療法』. 日本: 明治図書.
- 室伏 武 1965. “讀書療法研究の史的展望.” 『讀書科學』, 8(3): 1-7.
- 大神偵男. 1973. 『讀書療法: その基礎と實際』. 日本: 文教書院.
- Dorland, W. A. Newman. 1941.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 Philadelphia: W.B. Saunders Co.
- Good, C. V. 1966. *Dictionary of Education*. N.Y.: McGraw-Hill.
- Gove, P. B. 196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 G.&C. Merriam.Co.
- Howie, M. 1983. “Bibliotherapy in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3(3): 287-319.
- Rubin, R. J. 1978.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Phoenix, AZ: Oryx Press.
- Tews, R. M. 1970. “Progress in Bibliotherapy.” *Advances in Librarianship*, 1: 173.
- Young, H, ed.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Hyeon-Gi, Kyung-Sook Kang, and Jung-Eun Noh. 2017. “Effect of expression-driven Literature Therapy Program for Strengthening Interpersonal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1): 601-625.
- Baek, Jae-Eun. 2015. “A Study on Relation Analysis between Book and Category in Bibliotherapy Catalo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217-239.
- Byun, Ki-Yong, Suk-Yeol Lee, and Su-Hong Kim. 2010. “Trends of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in Korea: Research topics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1): 121-145.
- Hoang, Gum-Sook. 2005a.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1-14.
- Hoang, Gum-Sook. 2005b.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Overs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2): 305-320.
- Jeong, Pil-Mo and Dong-Geun Oh. 1991. *History of Library Culture*. Soeul: Ku-Mi Trading.
- Kim, hyeon-hoe et al. 2005. *Psychotherapy theory and practice*. Seoul: hakjisa.

- Kim, Mi-Kyung and Bo-Kyung Kim. 2012. "A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Korean Wave (Hallyu) Tourism: Focused on the KCI Journals (2003-2012)."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3(3): 1-18.
- Kim, Soo-Kyoung. 2010. "The Task of Bibliotherapy for the Expansion of Library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241-268.
-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001. *Bibliotherapy*. Seoul: Hakjisa.
- Lee, Bong-Hee. 2014. "The Therapeutic Power of Words and a Case Study with a Student with Low Self - Estee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1): 281-310.
- Lee, Myeong-Hee. 2014. "An Analysis of Research Behaviors in Bibliotherapy Study among 5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215-235.
- Morgan, A, ed. 2013. *What is narrative therapy?*. Seoul: Chongmok.